

상승세 호랑이, 1~3위와 2연전 '체력이 관건'

T 타이거즈 전망대

NC·키움...LG전 설욕 기회
잠실·광주·고척 경기 앞두고
부상 복귀 소식 없어 아쉬움
최형우·나지완은 기록 도전

■KBO중간순위 (17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80	48	2	30	0.0
2	키움	87	52	0	35	0.5
3	LG	85	48	1	36	3
4	두산	84	46	2	36	4
5	KIA	81	44	0	37	5.5
6	KT	81	42	1	38	7
7	롯데	79	40	1	38	8
8	삼성	84	40	1	43	10.5
9	SK	84	27	1	56	23.5
10	한화	83	22	1	60	28

'호랑이 군단'이 3연승 기세를 이어 힘찬 2연전의 '승자'를 꿈꾼다.

KIA 타이거즈 팬들이 모처럼 평온한 월요일을 보냈다. 올 시즌 일요일 전적이 2승 11패에 그쳤던 KIA가 지난 16일 SK와이브스와의 경기에서 오선우의 데뷔 첫 만루포 등을 앞세워 8-5 승리를 거둔 덕분이다.

귀한 일요일 승리는 KIA의 스윙을 완성한 승리가기도 했다. 앞서 14일 나지완의 역전 끝내기 스리런으로 7-6 승리를 거둔 KIA는 15일에는 최원준·최형우 '초이듀오'의 활약 속에 10-3 대승을 거뒀다.

톱타자로 나선 '베이비 초이' 최원준이 3안타 3득점으로 공격 전면에 섰고, '빅초이' 최형우는 사이클링히트에 2루타 부족한 3안타 3타점 활약으로 해결사가 됐다.

KIA는 그 분위기를 이어 3연승까지 내달렸다. 특히 앞선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에이스' 브룩스를 내고도 0-8 영봉패를 당하는 등 어려운 흐름이었던 만큼 의미 있는 스윙이 됐다.

KIA는 분위기를 살려 강자들을 상대로 강행군을 시작한다.

18일부터는 2연전 일정이 시작된다. KIA는 잠실-광주-고척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펼쳐야 한다. 여기에 상대들도 만만치 않다. 1위부터 3위까지 포진한 세 팀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18·19일에는 5연승 신바람 행진을 하며 3위로 도약한 LG와의 원정경기가 진행된다.

광주로 돌아와서는 1위 NC와 만난다. 지난 12일 2대 2 트레이드 이후 처음 이렇듯는 맞대결이기도 하다.

22·23일에는 고척에서 2위 키움과의 대결이 이뤄진다. NC가 3연패에 빠져있는 사이 키움은 연승으로 반 경기 차까지 1위 자리를 추격했다. KIA는 '1위 키'를 쥐고 NC·키움을 상대한다.

강행군을 펼쳐야 하지만 부상병들의 복귀 소식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세 번째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선빈은 재검진 결과를 보고 복귀 스케줄을 짜야 하는 상황이고, 손가락 인대가 늘어난 박준표도 17일 반갑스를 풀면서 이제야 복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발목 부상으로 빠져있는 '이적생' 김태진도 지난주 기술 훈련에 들어가는 등 부상병들의 귀환은 없다.

스윙에 기여한 최원준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15일 톱타자로 나와 3안타 3득점을 하며 공격 전면에 선 최원준은 16일에도 2루타 2개 포함 3안타 2득점을 올리며 주축을 맡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15일 경기 전 "좋은 톨을 가진 선수다. 스피드, 내·외야 활용 가능성, 파워,



1200안타에 6개를 남긴 나지완.

송구 능력 등을 갖췄다"며 최원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유일하게 갖추지 못한 부분이 '구준함'이라면서 '구준함'을 기대했다.

일단 최원준은 두 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난작'들과의 승부에서도 최원준이 파워와 스피드로 상대 배터리



최형우는 4개의 안타를 더하면 1900안타를 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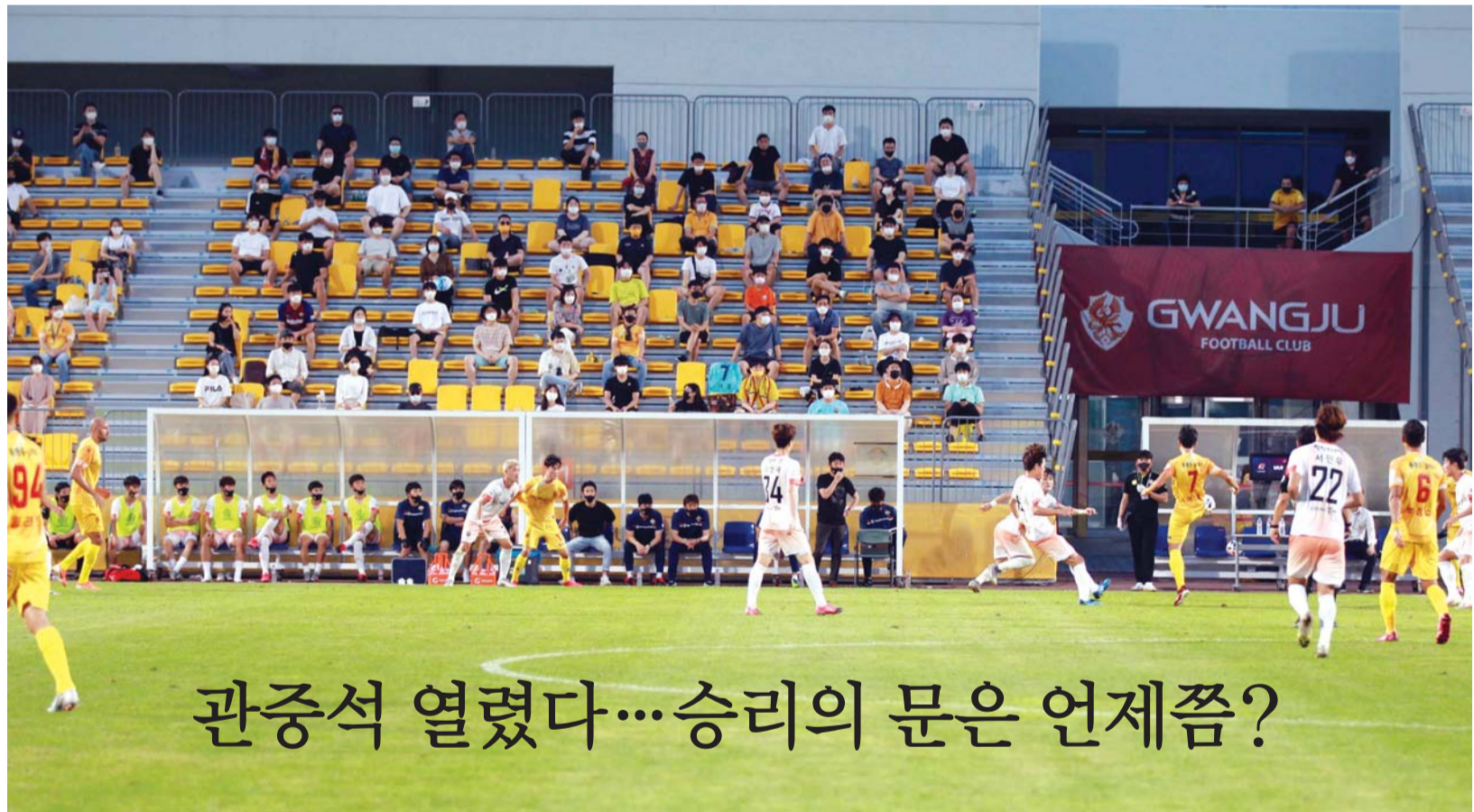
를 흔들어줘야 한다.

베테랑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살아난 타격감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최형우와 지난 14일 정규시즌에서도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나지완이 그 중심이다.

두 사람은 새로운 한 주, 개인 기록에도 도전할

다. 최형우는 4개의 안타를 더하면 KBO리그 통산 12번째 1900안타 주인공이 된다. 나지완은 통산 69번째 1200안타에 6개를 남겨뒀다.

지난 16일 올 시즌 처음으로 그라운드가 아닌 벤치를 지킨 터커도 에너지 충전을 끝내고 공격의 중심에 서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관중석 열렸다...승리의 문은 언제쯤?

광주FC가 지난 1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와 K리그1 16라운드 결전을 치렀다. 이날 새 구장에 관중이 입장하면서 광주는 올 시즌 처음 홈팬들과 함께 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강원과 2-2 무승부...3경기 연속 무패



광주FC가 860명의 관중과 함께 뛰었다. 광주는 지난 1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와 K리그1 16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새로운 안방에서 홈팬들과 처음 호흡한 경기였다.

지난 5월 8일 무관중으로 2020시즌을 시작한 K리그는 지난 1일 처음 관중입장 경기를 치렀다. 광주는 1일 인천에 이어 8일 포항 원정경기를 치르면서 홈팬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원전을 통해 새 구장에서 팬들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관중석에는 무더위에도 860명이 자리를 지켰다. 코로나19로 육성생원은 금지됐지만 팬들은 박수로 선수들을 응원하며 함께 뛰었다.

선수들의 좋은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팬들은 박수로 격려하고 응원했다.

시즌 처음이자 한층 가까워진 거리에서 팬들을

만난 광주 선수들은 열정적인 플레이로 보답했다.

두 팀은 치열한 몸싸움을 하면서 승리의 의지를 다졌다. 광주가 11차례 슈팅을 날리며 팬들을 환호시켰고, 강원도 7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슈팅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결과는 2-2 무승부.

광주가 전반 19분 김승대에게 먼저 골을 내줬지만 5분 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윌리엄스의 슈팅이 골키퍼 이범수를 맞고 흐르자 엄원상이 빠르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강원의 골대를 갈랐다. 이 골로 엄원상은 새 안방에서 골을 기록한 '광주 1호' 선수가 됐다.

골키퍼 윤평국의 좋은 수비 속에 1-1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다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도 윌리엄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윌리엄이 후반 5분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껴났다. 하지만 8분 뒤 윌리엄이 직접 골대를 갈랐다.

펠리페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뒤로 흘렀다. 속도가 준 골이 골대도 향했고, 윌리엄과 수비수가 동

시에 공을 향해 질주를 했다. 윌리엄이 빨랐다. 윌리엄이 그대로 공을 몰고 골대를 넘으면서 시즌 2호 골에 성공했고, 관중석에서는 이날 가장 뜨거운 박수가 흘러나왔다.

광주는 아쉽게도 후반 35분 강원 고무열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팬들에게 3경기 연속 무패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물했다.

앞선 포항전에서도 펠리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던 만큼 박진섭 감독에게는 아쉬웠던 결과.

박 감독은 "올해 처음 시민 여러분이 찾아와주셨고, 홈경기라 꼭 이기고 싶었는데 저번 경기와 비슷하게 막판에 비기게 된 게 아쉽다"며 "다음에는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관중석 팬들은 광주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다.

박 감독은 "생각보다 (관람석이) 가까워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상하기도 하고 말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관중 입장에서는 더 실감

나고 호흡할 수 있는 느낌이었던 같다"며 "팬들의 박수소리 들으면서 선수들도 힘이 더 난 것 같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더 아쉬워하는 게 팬들에게 승리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인 것 같다"고 첫 관중경기의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뒷심 부족 김시우 PGA 윈덤 챔피언십 3위

김시우(25)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640만달러)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시우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시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12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의 성적을 낸 김시우는 웨브 심프슨, 케빈 키스너(이상 미국) 등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까지 2위에 2타 앞선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 투어 통산 3승 기대를 부풀렸던 김시우로서는 아쉬운 결과가 됐다.

다만 2016년 우승과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 3위를 차지하며 윈덤 챔피언십에 강한 면모를 보인 것에 위안을 삼게 됐다. 지난해 이 대회 5위 이후 1년 만에 거둔 투어 '톱10' 성적이다.

짐 허먼(미국)이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로 우승했다.

2위 빌리 호של(미국)을 1타 차로 따돌린 허먼은 지난해 7월 바바솔 챔피언십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투어 3승째를 따냈다. 우승 상금은 115만

2000달러(약 13억6800만원)다.

김시우는 2번 홀(파4)에서 약 2m 버디 기회를 잡았지만 이 퍼트가 홀을 살짝 훑고 지나가며 선두로 치고 나갈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6번 홀(파4)에서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크게 밀렸고, 공을 찾지 못해 발타를 받고 세 번째 샷을 치는 바람에 더블보기를 기록했다.

반면 1, 2위에 오른 허먼과 호של은 초반 5번과 6번 홀까지 나란히 4타씩 줄이며 순식간에 김시우를 따라잡았다.

8번 홀(파4)에서도 티샷이 물에 빠지면서 한타를 잃은 김시우는 이 홀까지 3타를 잃으면서 흔들렸다.

김시우는 이후 9번과 11, 12번 홀 등 4개 홀에서 버디 3개를 잡아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15번 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를 2타 차로 따라잡기도 했다.

그러나 17번 홀(파4)에서 약 5m 파 퍼트를 놓치면서 한 타를 다시 잃고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임성재(22)는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로 5언더파 65타를 치고 최종합계 16언더파 264타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엄마 골퍼' 루이스 LPGA 스코틀랜드오픈 우승...전인지 7위

'엄마 골퍼'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약 3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루이스는 17일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버워의 르네상스 클럽(파71·6453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레이디스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15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오버파 72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를 기록한 루이스는 에밀리 페데르센(덴마크), 사이언 나이트(미국), 아시아라 무노스(스페인)와 같은 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4명이나 연장전에 들어갔지만, 18번 홀(파4)에서 열린 1차전에서 루이스만 버디에 성공하며 승부가 일찍 결정됐다.

루이스의 시즌 첫 승, 통산 13승(메이저대회 2승)이다. 우승 상금은 22만 5000달러(약 2억 6700만원)다.

루이스는 2017년 9월 컴베어 포틀랜드 클래식

에서 통산 12승을 거둔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루이스는 2018년 10월 말 첫 딸을 낳고 2019년 1월 복귀했다. 이번 우승은 루이스가 엄마가 된 이후 첫 우승이다.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교포 다니엘 강(미국)은 최종합계 4언더파 280타로 나나 마센(덴마크)과 함께 공동 5위에 오르며 대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다니엘 강이 레이디스 스코틀랜드오픈까지 제패했다면 2016년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이후 4년 만에 LPGA 투어 3개 대회 연속 우승 위업을 이룰 수 있었다.

다니엘 강은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 1타만 더 줄였다면 연장전에 합류할 수 있었다.

한국 국적 선수 중에서는 전인지가 최종합계 3언더파 281타로 공동 7위를 기록, 가장 높은 순위

에 올랐다. /연합뉴스